

달러 강세 속 환테크에 돈 몰린다

광주은행 올해 가입자 7632명...전년비 13%↑·평균 7082달러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 시행...12월16일까지 최대 90% 환율 우대

미국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발표와 인플레이션(물가 급등) 영향으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은행권은 이 같은 흐름을 의식해 환율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환테크'(환율+재테크) 상품을 강화하고 있다.

11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외환금융상품 가입 계좌 수는 7632개(외화정기예금 1007개·외화정기적금 6625개)로, 지난 한 해보다 12.9% 증가했다.

광주은행의 외화 정기예금·적금 가입 수는 지난 2019년 3193개(예금 1052개·적금 2141개)→2020년 6757개(예금 1287개·적금 5470개)→올 11월10일 기준 7632개 등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외화 금융상품 가입자들은 5405만 달러(639억 원) 상당을 납입했다. 한 사람당 7082달러 가량의 외화 예금·적금을 들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부진과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외화예금 또는 환율 상승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는 환테크 고객의 수요에 맞춰 지역 은행권도 변화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고객이 지정한 희망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외화를 사고팔 수 있는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를 시행했다.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는 외화정기예금 해지나 외화예금으로의 이체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광주은행 측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외에도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USD)·일본 엔화(JPY)·유럽 유로화(EUR)·중국 위안화(CNY) 총 4종이다.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부터 100만 달러 상당액 이하(건당)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광주은행은 서비스 시행과 광주은행 창립 53주년을 기념해 오는 12월16일까지 환율 우대 행사를 벌인다.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 오픈 이벤트' 행사 기간 동안 미화 10만 달러까지 90% 환율을 우대한다. 앞서 광주은행은 환전 때 0.20%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달러전 환테크 외화정기예



금'을 출시하며 외환 금융상품 강화에 나섰다.

미 1000 달러 이상 금액을 3개월부터 12개월 이내로 예치할 수 있다.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했을 때는 환율우대 50%를 자동 적용 받는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저금리 시대

와 불안한 국제 경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광주은행의 외환 매매 예약 서비스를 적극 추천한다"며, "앞으로도 금융 트렌드와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한 환테크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6~17일 광주 조선대 해오름관

오는 16~17일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2021'이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애니메이션 업계 자 중심 고취와 콘텐츠 산업 발전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를 통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한 '애니메이션·웹툰 공모전'과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어워드'와 '애니메이션 컨퍼런스'가 함께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지원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광주산 대표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의 정지환 감독의 강연 '좋은 애니메이션 작업자가 되는 방법'이 열린다.

이후 애니메이션·웹툰 공모전의 시상식과 상영회가 진행된다.

17일에는 'K-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컨퍼런스가 펼쳐진다.

이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어워드 시상식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

백신 접종 14일 경과 혹은 음성 확인서 지참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행사 소식을 전할 예정이며, 17일 행사는 'EBS교양'(EBS Culture)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겨울에도 촉촉하게" 1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2층 '더바디샵' 매장에서 다양한 보습 관리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은 회원을 대상으로 12~13일 이틀 동안 모든 품목을 30% 할인 판매한다. <롯데쇼핑 제공>

문세권·숲세권에 개발호재... '센트럴운암 모아엘가 트레뷰' 분양

오늘 주택전시관 오픈

센트럴운암(주)이 시행하고 해림건설(주)이 시공하는 '센트럴운암 모아엘가 트레뷰'가 12일 주택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 65-6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센트럴운암 모아엘가 트레뷰'는 지하 3층~지상 33층, 3개동 총 303세대로 구성된다. 오는 2025년 2월 입주 예정으로, 전용면적 84㎡부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114㎡ 중대형 평형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33층 고층으로 들어서는 만큼 탁 트인 조망권을 갖췄고, 전 세대 2.35m의 높은 천정과 설계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4베이(Bay-일부 세대) 혁신 설계와 알파룸, 팬트리, 돌출 발코니 등 여유로운 평면으로 설계해 주거쾌적성도 높였다.

단지에는 광주 북구지역 교통 중심지인 운암사거리 인근에 있어 북문대로와 하서로, 호남고속도로, 서광주IC, 동림IC 등 시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운암초와 경양초(2023년 예정), 운암중, 서강중, 금호중앙중, 경신중, 금고고, 고려고 등 초·중·고교와 구립운암도서관, 전남대 등 교육시설도 인접하다.

이밖에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비엔날레를 비롯해 공연·전시시설이 밀집돼 있는



중외공원도 가깝고, 2023년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외 대형 병·의원과 백화점, 종합버스터미널 등 생활·문화인프라도 갖췄다.

아파트와 동시 오픈예정인 단지내 상가도 사거리 대로변 전면 개방형으로 설계돼 접근성이 뛰어나고, 운암3단지 재건축과 중외공원 민간특례사업, 문화벨트 조성사업 등 개발호재도 기대된다.

주택전시관은 광주시 서구 마곡동 164-80에 위치하며, 주택과 단지내 상가를 동시에 오픈한다. 단지내 상가 청약자를 대상으로 명품가방 등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청약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공급, 23일에는 해당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문의 062-382-1002.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495,000,000원

상담 010-3733-3933